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9.(금) 16:30 < 1.10.(토) 조간 > 배포 2026. 1. 8.(목)

산업통상부장관, 미국 외투기업에 지속적인 한국 투자 확대 당부

- 산업통상부장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 참석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1월 9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 및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내 투자 중인 미국계 외투기업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는 양국간 투자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미→한 투자액(신고기준) : ('22) 87억불 → ('23) 61억불 → ('24) 52억불→ ('25) 97.7억불 (+86.6%)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하여 국내 투자 주요 미국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한미 개별품목 관세 협상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에 김정관 장관은 “암참 회원사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투기업을 위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끝으로 김정관 장관은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한-미 양국이 첨단·미래 산업 중심으로 투자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요 외투기업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상희(044-203-4070)
		담당자	사무관	김진경(044-203-407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요**

□ 간담회 개요

○ **(일시)** ’26.1.9(금) / 16:30~17:30

○ **(장소)**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1실

○ **(참석자)**

- **(정부) 산업통상부장관 등**

-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 등 10인 내외

○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애로사항 청취

□ 진행 순서(안)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6:30-16:33(03’)	• 개회 및 사진촬영	
16:33-16:38(05’)	• 모두발언 (영-한 순차통역)	제임스김 암참 회장
16:38-16:43(05’)	• **모두발언** (한-영 순차통역)	**장관**
16:43-17:28(45’)	• 토론	참석자 전원
17:28-17:30(02’)	• 폐회	제임스김 암참 회장